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竜之介)론

- 가타야마 히로코(片山広子)에의 연정과 노래를 중심으로 -

감영희*
kamyol110@tu.ac.kr

<目次>

1.		3.1	
2. 가	(片山広子)	3.2	가
3. 가	(輕井沢)	4.	

主題語: 아쿠타가와(Akutagawa), 가타야마 히로코(Katayama hiroko), 노래(poetry), 사랑(love), 가루이자와(karuizawa)

1. 서론

가타야마 히로코(片山広子/필명 마쓰무라 미네코 松村みね子)(이하, 히로코)는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이하, 아쿠타가와)의 만년의 작품 『어느 바보의 일생(或阿呆の一生)』¹⁾ 37장에 ‘재능 상으로도 겨룰 수 있는 여성(才力の上にも格闘できる女性)’이라고 언급되고 있으며, 그가 『상문(相聞そうもん)』²⁾에서 노래한 ‘그대(君)’는 히로코를 지칭한 말로 알려져 있다.

호리 타쓰오(堀辰雄)의 아쿠타가와에의 자살로 인한 충격에서 창작된 출세작 『성가족(聖家族)』에 등장하는 ‘호소기(細木)부인’과, 작품 『나오코(菜穂子)』³⁾의 ‘미무라(三村)부인’의 모델로도 알려지고 있다.⁴⁾ 특히 나오코 모친의 모델이 된 것이 히로코이며, 모친의 연인 모리(森)의 모델은 아쿠타가와였다고 한다.⁵⁾

* 동명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1) 아쿠타가와에의 단편소설. 잡지『개조(改造)』1927년 10월호 게재

2) 『만요슈(万葉集)』부(部) 가름의 하나로, 창화(唱和)·증답(贈答)의 노래를 모은 것. 주로 연가(戀歌)가 많음. 여기서는 주로 창화의 뜻.

3) 장편. 호리 타쓰오 만년의 대표작으로 그의 문학의 도달점으로 불린다.

4) 桐山秀樹・吉村祐美(2012)『輕井沢という聖地』エヌティティ出版

川村湊(2005)『物語の娘-宗瑛を探して』講談社

5) 小久保実編(1984)『『菜穂子』の構想と実現』『新潮日本文学アルバム17 堀辰雄』新潮社

작품 중 미무라부인이 딸 나오코에게 더 이상 자신이 여자의 몸이 아닌 것(폐경)을 고백하면서,

“나는 내가 이 나이가 되어 한 번 더 모리씨를 뵈고 남김없이 마음 속 이야기를 다하고, 마지막 이별을 하고 싶었는데...(私は自分がさういふ年になれてから、もう一度森さんにお目にかかって心おきなくお話の相手をして、それから最後のお分かちをしたかったので...)”

라고 한 말은, 호리 타쓰오가 히로코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이며 그것을 작품으로 옮긴 것이라고 한다.

문호 아쿠타가와와 미모와 재능을 갖춘 문인여성 가타야마 히로코의 숨겨진 사랑은, 아쿠타가와 사후 90년인 2017년 7월, 작가 다니구치 케이코(谷口桂子)에 의해 소설로도 간행되고 있다.⁶⁾

아쿠타가와 사후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숨어 지낸 히로코는 늦은 만년 수필집과 가집을 간행하여 높은 평가를 받고 79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아쿠타가와와 ‘마지막 여인’으로 불린 14세 연상의 상류층 부인으로서 아일랜드문학 번역가로 이름을 알린 히로코와 아쿠타가와와 가루이자와(軽井沢)⁷⁾에서의 운명적 만남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정열적인 편지 속에 잘 드러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쿠타가와와 히로코의 가루이자와(軽井沢)에서의 한여름의 만남으로 시작된 연정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삶과 노래를 통해 두 사람의 사랑의 실체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두 사람이 주고받은 시를 조명함으로써, 단편작가로서 알려진 아쿠타가와와 시인으로서의 재능과 사고를 고찰, 아쿠타가와와 또 다른 하나의 본질에 다가가고자 한다.

2. 가타야마 히로코(片山 広子)

히로코는⁸⁾ 일본의 시인(歌人), 수필가, 아일랜드문학 번역가로 알려져 있다. 그녀에게는

6) 谷口桂子(2017)『越し人-芥川龍之介最後の恋人』小学館

히로코와 아쿠타가와와의 연정이야기를 중심으로, 히로코의 딸과 호리타쓰오의 이룰 수 없었던 연애이야기를 곁들이고 있다. 당당한 정열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히로코의 인생을 여성작가 시점에서 써내려간 장편소설.

7) 나가노현(長野県)도신(東信)지방의 사쿠(佐久)지역의 지명.

8) かたやま ひろこ : 1878년(明治11)-1957년(昭和32)

두 개의 이름이 있다. 하나는 시인으로서의 이름 ‘가타야마 히로코’와 주로 아일랜드문학을 중심으로 번역 할 경우, 필명인 마쓰무라 미네코(松村みね子)가 그것이다.

외교관·요시다 지로(吉田次郎)의 장녀로 도쿄(東京)에서 태어나 동양영화여자학교(東洋英和女学校)를 졸업 한 후, 사사키 노부쓰나(佐佐木信綱)⁹⁾에게 사사(師事)를 받아 시인으로 활동하였다.¹⁰⁾ 만년의 수필집 『도카세쓰(灯火節)』로 1954년도 일본 에세이 클럽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가집에 『가와세미(翡翠)』가 있다.

가타야마 테이지로(片山貞治郎)와 결혼 후, 메이지38년(1905) 27세부터 도쿄(大田区山王三丁目)에 살게 된다. 다이쇼9년(1920) 42세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 벤텐치(弁天池)에 결혼반지를 내던지고 남편에게 좌우되어 자신의 뜻을 관철할 수 없었던 과거의 자신과 단절한다. 장남 가타야마 타쓰키치(片山 達吉)의 독립, 그리고 딸 후사(総子ふさ)가 결혼한 후, 젊은 하녀와 평생 살아갔다. 쇼와20년(1945) 장남의 사망 이후 마고메 문학권(馬込文学園)¹¹⁾시절을 맞게 되는데, 이 시기 히로코와 교류하던 지역 연고자로서 동양영화여자학교(東洋英和女学院)후배인 무라오카 하나코(村岡花子)¹²⁾ 그리고 아쿠타가와를 들 수 있다. 아쿠타가와와는 과거부터 교류가 있었지만 다이쇼13년(1924) 가루이자와의 쓰루야(つるや)여관에서 동숙하면서부터 두 사람은 급속히 서로에게 끌리며 친교하게 된다. 아쿠타가와와는 죽음 1개월 전, 제자 호리 타쓰오의 안내로 가타야마의 자택(東京都大田区山王三丁目)을 방문하였다. 기쿠치 칸(菊池寛)은 「시사신보(時事新報)」 문예부기자 시절, 히로코에 대해 「일본 부인 중 가장 학식이 있는(日本婦人中もっとも学識がある)」이라고 평가하였다. 또 호리 타쓰오는 아쿠타가와를 통하여 히로코와 만났지만, 아쿠타가와 사후에도 히로코와 그 가족과 친밀히 교류하였으며, 작품 『성가족(聖家族)』이나 『모노가타리 온나(物語の女)』 등에 히로코와 그녀의 장녀인 후사를 모델로 한 듯한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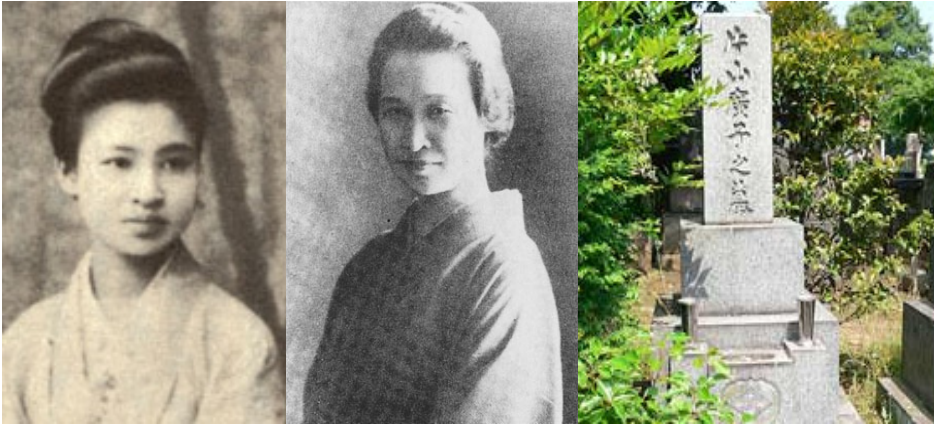
히로코는 쇼와31년(1956), 뇌출혈로 쓰러져 병상에 들게 된다. 과거 ‘쓸쓸하지만 기쁘게 홀로 되는 일(こがくうれしくひとりなること)’ 이라고 노래한 그녀는 다음해 봄(3월19일) 생을 마감했다.

9) ささき のぶつな : 1872년(明治5)-1963년(昭和38)

10) 村岡恵理編(2014)『花子とアンへの道』新潮社, pp.36-41

11) 당시, 도쿄도 오타구(東京都大田区) 고마메(馬込)주변에 많은 작가가 모여 살면서 교류와 왕래를 통하여 유명해졌는데 이로써 이곳을 ‘마고메 문사촌(馬込文士村)’이라고 불리었다

12) 무라오카는 히로코를 사모하여 도쿄도로(東京都大田区中央二丁目) 이사했다. 그녀에게 번역을 권한 것도 히로코이다. 가사 일에 익숙하지 못했던 오카야마에게 히로코는 반과 반찬을 가져다주기도 했다.



<사진 1>

<사진2>

<사진3>

<사진1>은 젊은 날의 히로코이다. ‘보기 싫은 모습을 남기고 싶지 않다’며 카메라를 피해 다녔던 그녀에게는 귀한 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¹³⁾. <사진3>은 묘비이다.

3. 가루이자와(輕井沢)에서의 만남

다이쇼13(1924)년 여름, 아쿠타가와는 나가노현(長野県) 가루이자와를 방문하고 시인·번역가로서 재능을 발휘하고 있던 히로코와 만난다. 히로코와 아쿠타가와는 이성으로서 또한 문학 동지로서 서로에게 끌리며 깊은 마음의 교류를 나누었다. 14세나 연상이었던 히로코와의 사랑은, 깊은 남녀관계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만년의 아쿠타가와에게 심정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1 히로코에의 모정

『하나(鼻)』, 『라쇼몬(羅生門)』 등의 소설로 알려진 아쿠타가와는, 쇼와2년(1927) 7월 24일, 35세의 젊은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사후 발견된 유작원고 『어느 바보의 일생(或阿呆の一生)』에는 다음과 같은 일절이 실려 있다.

13) 出典、清部千鶴子(1997.7)『片山廣子-高の歌人-』短歌新聞社

「그는, 그와 재능으로도 경쟁할 수 있는 여성을 만났다. 그러나 ‘고시비토(越し人)’ 등의 서정시를 지으면서 겨우 그 위기를 탈출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나무줄기에 얼어붙어 찬란히 빛나는 눈을 떨어뜨리는 듯 애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었다.(彼は彼と才力の上にも格闘出来る女に遭遇した。が「越し人」等の抒情詩を作り、僅かにこの危機を脱出した。それは何か木の幹に凍った、かがやかしい雪を落すやうに切ない心もちのするものだった。)」

여기서 ‘그(彼)’라는 것은 아쿠타가와 자신이며, ‘재능으로도 경쟁할 수 있는 여성(才力の上にも格闘出来る女)’은 와카의 가인·번역가로서 활약한 히로코를 지칭한 것이다. 또 「고시비토(越し人)」<사진4>는, 다이쇼14년(1925) 문예지 『명성(明星)』3월호에 발표한 아쿠타가와 의 세도카(旋頭歌)¹⁴⁾ 25수(首)¹⁵⁾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권두에 다음과 같은 노래가 실려 있다.

14) 와카(和歌)의 일종으로 두 사람이 노래하는 5.7.7·5.7.7 형식

15) 세도카 25수(旋頭歌二十五首、芥川竜之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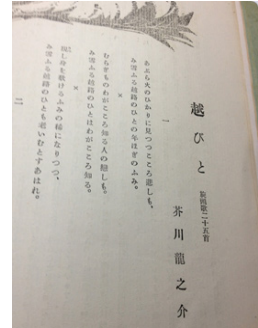
一あぶら火のひかりに見つところ悲しも、み雪ふる越路のひとの年ほぎのふみ
むらぎものわがところ知る人の恋しも。み雪ふる越路のひとはわがところ知る。
現し身を欺けるふみの稀になりつつ、み雪ふる越路のひとも老いむとすあはれ。
二うち日さす都を出でていく夜ねにけむ。この山の硫黄の湯にもなれそめにけり。
みづからの体温守るははかなかりけり、静かなる朝の小床に目をつむりつつ。
何しかも寂しからむと庭をあゆみつ、ひっそりと羊歯の巻葉にさす朝日はや。
ゑましげに君と語らふ君がまな子をことわりにあらそひかねてわが目守(まもり)りをり。
寂しさのきはまりけめやこころ揺らがず、この宿の石菖の鉢に水やりにけり。
朝曇りすずしき店に来よや君が子、玉くしげ箱根細工をわが買ふらくに。
池のべに立てる楓ぞいのちかなしき。幹に手をさやるすなはち秀(ほ)をふるひけり。
腹立たしき身と語れる医者笑顔は。馬じもの嘶(い)ひわらへる医者歯ぐきは。
うつけたるこころをもちて街ながめをり。日ざかりの馬糞にひかる蝶のしづけさ。
うしろより立ち来る身に感じつつ、電灯の暗き二階をつつしみくだる。
たまきはるわが現し身をおのづからなる。赤らひく肌(はたへ)をわれの思はずと言はめや。
君をあとに君がまな子は出でて行きぬ。たはやすく少女ごととわれは見がたし。
言にいふにたへめやこころ下に息づき、君が腫(め)をまともに見たり、鳶(と)いろの瞳を。
三秋づける夜を赤赤と天づたふ星、東京にわが見る星のまうら寂しも。
わがあたま少し鈍りぬとひとり言いひ、薄じめる蚊遣線香に火をつけており。
ひたぶるに昔くやしも、わがまかずして、垂乳根の母となりけむ、昔くやしも。
たそがる土手の下べをかり行きかく行き、寂しさにわが摘みむしる曼珠沙華はや。
曇り夜のたどきも知らず歩みてや来し。火ともれる自動電話に人こもる見ゆ。
寝も足らぬ朝日に見つといく日経にけむ。風きほふ狭庭(さには)のみぢ黒みけらずや。
小夜ふぐる炬燵の上に顎をのせつつ、つくづくと大書棚見るわれを思へよ。
今日もまたこころ落ちぬず黄昏(たそが)るるらむ。向こうなる大木冬樹(ふゆぎ)梢(うら)ゆらぎをり。
門のべの笹吹きすぐる夕風の音、み雪ふる越路のひともあはれとを聞け。

「あぶら火のひかりに見つところ悲しも、み雪ふる越路のひとの
年ほぎのふみ。(기름불 불빛으로 보면서 마음이 서러워지는 것은,
눈 내리는 고시비토의 새해 인사편지)」¹⁶⁾

사실, 이 노래는 히로코의 첫 번째 가집 『가와세미(翡翠)』 중의
「가루이자와에서 읽는 노래40수(軽井沢にてよみける歌十四首)」의
권두(卷頭) 와카, 「空ちかき越路の山のみねの雪、夕日に遠く見れ
ばさびしき。(하늘 가까이 쌓인 고시 지 봉우리의 눈, 멀리 석양에
바라보니 쓸쓸한 마음)」에 대응하는 형태로 읊어진 노래이다. ‘고시
비토(越し人)’란 즉 ‘고시지(越路)¹⁷⁾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로코를 지칭하는 아쿠타가
와의 연모가 깃들어진 노래이다.¹⁸⁾

『가와세미(翡翠)』는 히로코가 38세에 출판한 첫 번째 가집이다. 다이쇼5년(1916) 3월25일,
지쿠하쿠카이(竹柏会)출판부에서 발행된 「마음의 화총서(心の華叢書)」의 한권으로, 히로코
가 마고메 문학권(馬込文学圏)에 속해있던 무렵의 작품이다. 가와세미(翡翠)는 보석으로 「히
스이(ひすい)」라고도 읽히지만, 여기에서는 푸른 새(鳥)¹⁹⁾를 의미한다. 그래서인지 「가와세
미」를 주제로 한 노래도 몇 수 포함되어 있다.

아쿠타가와는 중학생 시절에 이미 히로코를 알고 있었다. 도쿄부립제3중학교(東京府立第
三中学校) 동급생이었던 하라젠 이치로(原善一郎)의 권유로 잡지 「마음의 꽃(心の花)」을 읽게
되는데, 동 잡지의 창간 멤버로 활약하고 있던 가타야마 히로코의 이름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을 것이다. 아쿠타가와도 동 잡지에 단가를 기고하게 되는데, 히로코를 단가의 스승
혹은 라이벌로 의식하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히로코가 「마음의 꽃」으로 번역도 하고 있었
으므로, 아쿠타가와와의 향상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자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도쿄
제국대학 영문과에 진학한 아쿠타가와는 영어실력으로는 자신이 한발 앞선다는 자부심도
있었던 것 같다. 도쿄대 재학 중이던 1916년 6월1일 발행된 『신사조(新思潮)』에, 당시 24세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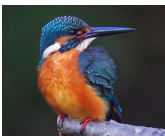
<사진4>

16) 현대역: あぶら火の光で、あなたの新年の祝の歌をもの悲しく眺めている。

17) 호쿠리쿠도(北陸道)의 옛 이름으로 지금의 니가타(新潟)

18) 아쿠타가와가 니이가타(히로코의 남편 貞次郎의 출신지)에 있는 히로코를 마음에 두고 읊었다고 하는
세도가(旋頭歌)

19) 가와세미는 ‘청류의 보석(清流の宝石)’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푸른 새.



던 아쿠타가와와는 ‘아쿠타(唾苦陀)’라는 이름으로『가와세미』에 비평문을 송부하여 「과감하게 새로운 경지를 지향하고 있다(果敢に新境地を目指している)」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이미 오래 전 편지를 교환한다든지 서로 헌본(獻本)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쇼와2년(1927) 8월7일자 히로코가 야마가와 류코(山川柳子)²⁰⁾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에는 다음과 같은 일절이 있다.

「六月末にふいとわたくしの家を訪ねて下さいました堀辰雄さんを案内にして何かたいへんにするどいものを感じましたが、それが死を見つめていらつしやるするどさとは知りませんでしたわたくしはいろいろと伺ひたい事もあつたのですが何も伺はずただ「たいへんにお黒くおなりになりましたね、鵲沼のせみでせうか」などとつまらない事を云つておわかれしました。それから一月经つてあの新聞を見た時の心持をおさつして下さい(6월 말, 문득 저희 집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호리 타쓰오씨를 안내로 무언가 힘들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이 죽음을 응시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쭙보고 싶은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아무 것도 물어보지 않고 “(얼굴이)매우 검어 지셨군요, 구계누마에 다녀온 탓이지요?” 등 쓸데없는 말로 작별인사를 했습니다. 그 후 한 달이 지나 그 신문을 보았을 때의 제 마음을 부디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²¹⁾

여기서 「それから一月经つてあの新聞を見た時」라는 것은 그해 7월24일 아쿠타가와와의 자살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아쿠타가와와는 자살하기 약 1개월 전 6월 말경, 제자 호리 타쓰오의 안내로 히로코의 자택²²⁾을 방문한 사실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것이 아쿠타가와에게는 그의 마지막 연인 가타야마 히로코와는 최후의 해후의 날이었다. 히로코는 이러한 기재를 통해 죽음을 자초한 아쿠타가와에 대한 극히 비통한 마음을 솔직하게 친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아쿠타가와와는 6월 20일「어느 바보의 일생」탈고 후, 구메 마사오(久米正雄)에게 원고를 부탁하는 글을 쓴다. 그리고 생전 최후의 창작집『고난의 부채(湖南の扇)』²³⁾를 간행, 21일 「도호쿠·홋카이도·니이가타(東北・北海道・新潟)」를 탈고, 25일 오아나 류이치(小穴隆一)²⁴⁾와 함께 니이하라(新原)가의 묘지를 참배한다.

20) 1883-1976 : 페이지에서 쇼와시대의 시인.

21) 芥川龍之介が永遠に最愛の「越し人」片山廣子に逢った—その最後の日を同定する試み, 2010
http://onibi.cocolog-nifty.com/alain_leroy/2010/08/post-87d5.html (검색일: 2019. 09.26)

22) 大田区の新井新宿三丁目 (현재 山王三丁目)

23) 『湖南の扇』: 중국여행에서의 취재를 바탕으로 한 소설. 「나(僕)」라는 주인공은 아쿠타가와 자신을 가리킨. 초판 간행은 문예추추 출판부에 의함.

24) 1894-1966: 서양화가, 수필가, 시인. 아쿠타가와가 자녀들에게 「小穴隆一を父と思へ。従つて小穴の教訓に従ふべし」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후, 유족과 친밀히 교류함.

아쿠타가와는 필생의 유작 「어느 바보의 일생」의 최종 집필과 확인 작업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구메에게 보낸 마지막 문장은, 말하자면 준 유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러한 탈고 시까지는 물리적 정신적으로 그가 히로코를 방문할 여유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고난의 부채』를 간행하고 그 헌정본을 기다릴 필요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히로코를 방문할 때 선물로 가져가고자 했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현재 히로코의 서재에서 확인된 바는 없지만, 히로코의 「호시안즈(乾あんず)」²⁵⁾를 읽어보면, 그녀의 서재에 아쿠타가와로부터 헌본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라쇼몬」 「차이나 여행기(支那遊記)」 등의 다수의 저작이 진열되고 있어, 추론가능하다.

아쿠타가와는 마지막으로 「도호쿠·홋카이도·니이가타」를 정리, 집필했다. 집필은 이미 완성되었던 원고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느 바보의 일생」에 비하면 아무래도 여행 중의 메모를 바탕으로 한 가벼운 글이라는 점에서 속성으로 빨리 완성시켰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어느 바보의 일생」이야말로 아쿠타가와와 괴로움으로 고통 받았을 심정이 히로코와 직접 만나게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즉 아쿠타가와가 모든 것을 ‘멸함으로서의 어느 바보의 일생’이라는 현실 속 자신을, 작품으로서 탈고해버렸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히로코가 아쿠타가와와의 죽음의 결의를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강한 후회는 그러한 뉘우침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니이하라(新原)가의 무덤 참배를 끝으로, 정진(精進)기간을 끝내고 평상으로 돌아가는 문예적 이별을 고하는 행동은 즉 모든 것의 완료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이전 마지막으로 연모했던 여인, 그래서 영원한 성녀(聖女)로 남게 될 히로코와의 이별을 배치한 것인지도 모른다.

다이쇼14년(1925)1월1일, 아쿠타가와는 「다이도지신스케노 한세이(大導寺信輔の半生)」를 「중앙공론(中央公論)」에 발표한 후, 2월 경 히로코는 아쿠타가와에게 정열적인 편지를 보내고 있다.²⁶⁾

「ぜひおめにかかっておはなししたい(꼭 뵙고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どこか御近所でもまゐりたい(어딘지 근처라도 가고 싶어.)」

「京都や長崎までもまゐりたいくらいに思ひますぜひぜひおきき下さい」

(교토나 나가사키까지라도 가고 싶을 정도로 생각합니다. 부디 부디 들어주십시오.)」

25) 수필집 「도카세쓰(燈火節)」(暮しの手帖社, 1953)에 수록된 48개 작품 중 하나.

26) <https://tatsuno.shisyou.com/biographical-sketch.html>

もうひとつの年譜・堀辰雄の書簡

그러나, 3월1일 그는 「고시비토(越びと)」를 「명성(明星)」에 발표하고, 히로코와의 연애가 발전되는 것을 회피하게 된다. 세상의 평가는 아쿠타가와와 열정이 식은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한다. 하지만 8월 20일 아쿠타가와와 가루이자와에 도착하여 9월 하순까지 체재하면서, 호리 타쓰오를 데리고 가루이자와를 산책하고 히로코와의 추억이 깃든 오이와케무라(追分村)²⁷⁾로 몇 번이나 발길을 옮기고 있다. 8월 26일(혹은 27일로 추정) 아쿠타가와·호리 타쓰오·히로코와 그녀의 딸 후사는 함께 드라이브를 나갔으며, 8월 28일 히로코는 상경한다. 따라서 아쿠타가와와 이미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고 주변을 정리하던 시점에서 히로코와의 연애를 더 이상 승화시킬 자신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어느 바보의 일생(或阿呆の一生)」에는 아쿠타가와와 명백한 히로코와의 찬가와 더불어, 그 히로코에 대한 연정을 잘라버리는 아픈 마음의 비가(悲歌)로서의 「37 고시비토(三十七越し人)」가 실려 있다.

三十七 越し人

「風に舞ひたるすげ笠の何かは道に落ちざらん、わが名はいかで惜しむべき惜しむは君が名のみとよ。(바람에 날아오르는 사초삿갓도 마침내 길에 떨어지지 않을 리 없네. 내 자신의 명성 따위는 아깝지 않지만 오직 당신의 이름을 더럽힐까 그것만이 염려스럽네)」²⁸⁾

이 「37 고시비토(三十七 越し人)」는 사실로써 일반에게 알려져 있다. 아쿠타가와와는 자칫 사랑에 빠져들 것 같은 위기감을 ‘고시비토(越し人)’를 향한 서정시를 읊으면서 극복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극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나무에 쌓여 얼어붙어 빛나는 눈을 떨어뜨리듯’ 너무나 애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히로코를 염려하는 아쿠타가와와의 자기고백을 들여다보면 혹은 해석해보면 그야말로 두 사람의 숨겨진 사랑이야기가 그대로 느껴지면서 전달되어온다.

여기서 「어느 바보의 일생(或阿呆の一生)」 탈고 직후, 아쿠타가와와의 마음을 오로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히로코와의 모습, 그 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쿠타가와와의 일생을 기재한 연보를 살펴보면, 대개 「어느 바보의 일생(或阿呆の一生)」 탈

27) 나가노현(長野県) 기타사쿠군(北佐久郡) 가루이자와마치(軽井沢町)소재. 호쿠리쿠도(北陸道)와의 분기점.

28) 현대역: 風に舞い上がったすげ笠が、いずれ道に落ちないことがあるだろうか。
自分の名声など惜しくはなく、あなたの名声を汚すことだけ気遣わしい。

고 후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앞으로 아쿠타가와 연보에서 쇼와2년(1927) 6월말 부분에 ‘호리 타쓰오와 가타야마 히로코의 자택을 방문, 이것이 히로코와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라는 기사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

여기서 잠시, 아쿠타가와를 둘러싼 여성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아쿠타가와는 평생 처였던 후미(文)²⁹⁾부인에 대해서 집사람으로서, 삼형제의 어머니로서, 일관되게 편안한 애정을 가지고 대하였다. 후미 외 여성으로서 실모 후쿠(フク)의 존재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후쿠는 메이지 25년(1892) 3월 1일, 아쿠타가와를 생산하였지만, 후쿠의 나이 33세라는 액년(厄年)에 태어남으로써 일본사회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미신에 의해 버려진 아이로 취급받는다.³⁰⁾ 출생에서부터 어두운 그림자를 지닌 아쿠타가와와는, 마침내 생후 7개월 후쿠의 정신병 발작으로 후쿠의 큰 오빠 아쿠타가와 도쇼(芥川道章)에게 맡겨진다. 마침 후손이 없던 도쇼는 아쿠타가와를 양자로 입적시켰다. 이후 숙모 후케(フケ)에 의해 자라난다. 후케는 체구가 자그마하고 소심하지만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아쿠타가와 집안에서 류노스케는 소중히 자라나지만 10세 되던 해 실모 후쿠가 사망한다. 당시 정신병은 유전병으로 알려져 있었고 예민한 아쿠타가와와는 평생 자신도 정신병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번민해야 했다.

후미와의 신혼생활 직후, 문인사회를 통해 알게 된 히데 시게코(秀しげこ)는 아름답고 화려하고 자유분방한 매력을 지닌 여성이었다. 처음 시게코에 사로잡힌 아쿠타가와와는 시게코를 ‘수인(愁人)’이라고까지 부르며 동경하였지만, 곧 시게코의 집요한 동물적 본능 앞에 ‘광인의 딸(狂人の娘)’로 불리게 된다. 집요한 시게코는 당시 유명한 작가를 쫓아다니는 이름뿐인 문인에 지나지 않는 여성으로, 당시 명성을 떨치고 있던 아쿠타가와를 떠나지 않고 ‘복수의 신(復讐の神)’으로까지 불리며 오랫동안 아쿠타가와를 위협 속에 빠뜨렸다. 히데 시게코를 알게 되면서 아쿠타가와와는 평생을 번뇌와 고통 속에 보내게 되는데, 자살의 한 원인을 제공한 여성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시게코와의 만남 이후, 일체 여성과의 만남이 없었던 아쿠타가와가 다이쇼13년(1924) 여름, 가루이자와에서 그의 최후의 연인 가타야마 히로코를 만나게 된다. 이로써 히로코는 아쿠타가와와의 연정을 다시 불러일으킬 만큼의 매력있는 여성이었음이 증명되는 것이다. 더구나 히로코는 14살 연상의 여인이었다.

14살 연상의 재원으로 미모였던 히로코는 아쿠타가와와의 모정을 새삼 돋우었을 것으로 생각

29) 芥川 文(1900-1968): 아쿠타가와와 처. 구성(旧姓)은 쓰카모토(塚本).

30) 야쿠토시(厄年)는, 일본에서는 액재(厄災)가 많은 연령을 의미한다. 과학적 근거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본액(本厄)은 남성의 경우 햇수로 25세, 42세, 61세를, 여성의 경우는 19세, 33세, 37세로 본다. 특히 남성 42세와, 여성 33세는 대액(大厄)이라고 하여 흉사나 재난을 만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여 충분한 경계를 필요로 한다고 한다.

된다.

아쿠타가와와 제자, 호리 타쓰오는 단편소설 『성가죽』에서 아쿠타가와와 히로코를 「도르제르 백작의 무도회(ドルジェル伯の舞踏会)」³¹⁾ 풍의 가벼운 필치로, 아쿠타가와와 죽음의 그림자에 지배되는 호소키 미망인(細木 未亡人=히로코)과, 그 딸 기누코(絹子) 그리고 호리 타쓰오 자신을 고노 벤리(河野 扁理)역으로 분해 쓰고 있다.

다이쇼13년(1924) 여름, 호리 타쓰오는 가나자와에서 도쿄로 귀경하던 중, 가루이자와에서 1박 후 아쿠타가와로부터 히로코를 소개받는다. 아쿠타가와와 연상의 총명한 미망인에게 연모의 정을 품었고 히로코도 그에게 강하게 끌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도쿄로 돌아와서도 몇 번이나 식사와 연극을 보러가게 된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히로코의 의외로 끈끈한 어프로치가 아쿠타가와에게는 불편했는지도 모르겠다. 아쿠타가와와 「고시비토(越びと)」라는 서정시를 통해, 히로코와의 사랑을 어디까지나 관념적인 것으로 끝내고 있다. 이를 계기로 호리 타쓰오는 히로코의 아들 다쓰키치와 딸 소우코(필명:소에이) 등과 친해져, 카루이자와 이외에도 교류가 계속 되었다. 그리고 쇼와2년(1927) 6월 말, 아쿠타가와 죽음 한 달 전, 아쿠타가와와 호리 타쓰오를 데리고 느닷없이 히로코의 저택을 찾고 있다.

아쿠타가와와 「고시비토(越し人)」 「소문(相聞)」 등의 서정시를 지음으로서 히로코와 사랑에 빠지기 전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편지를 주고받는 주체로서 2년간이나 이어지고 있어, 반드시 순수하고 정신적인 플라토닉 러브(Platonic love)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다음의 시를 보자.

「左団次(さだんじ)は今年来らず住吉の松村みね子は昨日来にけり
(금년 사단지는 오지 않고, 스미요시의 미네코는 어제 왔었네)」

芥川

「しずかにもまろ葉のみどり葉映るなり 'これは山路' と同じことを言ふ
(조용히도 푸른 잎사귀 어울려 비치니 ‘이곳은 산길’이라고 동시에 말하네)」

広子

「日の照りの一面におもし路のうへの馬糞にうごく青き蝶の群れ

(햇살에 비쳐 빛나고 있는 추억의 길 위, 떨어져 있는 말똥에 춤추는 파란 나비 떼)」

広子

두 사람은 호젓이 산길을 산책하였던 것 같다. 그곳에서 함께 바라본 정경을 서로 노래로 주고받고 있는 것이다. 히로코의 노래에 대한 아쿠타가와와의 창화(唱和)가 재미있다.

31) 프랑스 작가 레이몬드 라디게트(Raymond Radiguet)의 장편소설, 퇴폐적인 사교계를 무태로 정숙한 백작 부인이 남편에 대한 정조와 청년에 대한 정열 사이에서 고뇌하는 삼가관계를 묘사한 연애심리물.

『현대단가전집(現代短歌全集)』³²⁾에 「가타야마 히로코집(片山広子集)」에 남아있는 이 시기의 연작을 읽으면, 연상의 여성이라고 하지만 풍부한 지성과 더불어 날씬하고 아름다운 미망인과의 산책은 아쿠타가와에게 지적 유희와 같은 즐거움을 가져다주었을 것이라는 것은 틀림 없다.

아쿠타가와와 활동을 같이한 작가 무로 사이세이(室生 犀星)는, 히로코에 대해「말이 없는 부인(クチナシ夫人)」이라고 했다. 쇼와7년(1932)에 발표한『푸른 원숭이(青い猿)』라는 소설에서, 사이세이(42세)는, 히로코가 모델이라고 생각되는 인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アイルランド文学の名翻訳家で五十ぐらゐの夫人で、どういふ場合でも他人の陰口をいはいない典雅な夫人だった。年よりもずっと若くてどこかフランチエスカ・ベルチニといふイタリアの古い女優の顔に似てゐた。...(中略)...クチナシ夫人といふ名前をつけてゐた。それは何処かくちなしの花の感じがあつたからだ。(아일랜드 문학의 명 번역가이자, 나이 50세 정도의 부인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남의 험담을 하지 않는 전아한 부인이었다. 나이보다도 훨씬 젊어보였으며 어딘가 후란체스카 베루치니라는 이탈리아 여배우의 얼굴과 닮은 듯 했다. (중략) 말이 없는 부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것은 어딘가 말이 없는 꽃과 같은 느낌 때문이었다.」

그녀에게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다. 외견만이 아닌 타인을 험담하지 않는 겸허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여기서 ‘구치 나시’란 사람을 나쁘게 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러한 히로코의 성격이 아쿠타가와에게는 큰 매력으로 어필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편안하고도 슬픈 사랑으로도 아쿠타가와와 영혼과 육체의 쇠약은 이미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쇼와2년(1927) 7월 24일 새벽, 본능적으로는 소설가이기보다 시인이었던 아쿠타가와는 35세의 젊은 나이로 자살함으로써 그 예술을 완성시켰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3.2 히로코의 아쿠타가와와의 사랑

가인·번역가로서 메이지·다이쇼·쇼와 세 시대를 살았던 카타야마 히로코는 쇼와32년(1957) 79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동생 여동생 어린 문학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차례로 앞세우는 인생을 보냈다. 히로코는 42세 때 은행가였던 남편 가타야마 테이지로를 보내지만, 그 4년 후 가루이자와에서 아쿠타가와를 만났고 사랑을 했다.

32) 片山広子 3권 가집 명「翡翠」

관동 대지진(関東大震災) 후, 한동안 노래를 발표하지 않았던 히로코는 피서지에서 많은 문학과 교류를 즐긴 듯, 아쿠타가와 등과 지냈던 오이와케(追分)에서의 나날의 스케치를 「日の照りの一面におもし路のうへの馬糞にうごく青き蝶の群れ(햇살에 비쳐 빛나고 있는 추억의 길 위, 떨어져 있는 말뚝에 춤추는 파란 나비 떼)」라고 노래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전장에서 기술한 바이다. 다만 이 노래의 배경에는 두 사람이 같이 바라본 무지개가 있었다.

다이쇼13년(1924) 8월19일, 아쿠타가와(32세)와 히로코(46세)는 가루이자와의 「스루야 여관(つるや旅館)의 주인 사토 후지오(佐藤不二男)가 내어준 차를 빌려 타고 시나노 오이와케(信濃追分)까지 가게 된다. 나카센도(中山道)³³⁾와 호코쿠가이도(北国街道)³⁴⁾의 분기점에 해당하는 갈림길에 이르렀을 때, 마침 두 사람 앞에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뜬다. 아쿠타가와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날의 무지개였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름다운 무지개를 함께 바라보았을 것이다. 그 때의 일을 호리 타쓰오는 소설 속에 이야기하고 있다.

히로코의 장남 다쓰키치(達吉)가 무렵 학교를 졸업하였고, 장녀 후사코(総子)와 더불어 수년 후에 문필에 종사하게 된다. 호리 다쓰오가 히로코와 후사코 모녀에게 사모의 정을 품고 『성가죽』『나오코』의 모델로 삼은 이야기는 가루이자와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잘 전해준다. 공식적으로는 아쿠타가와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 않았던 히로코도 편지문에서

「わたくしが女でなく男があるひはほかのものに、鳥でもけものでもかまひませんが女でないものに出世しておつきあひはできないでせうか(제가 여자가 아닌 남자이든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새라도 짐승이라도 상관없으니, 여자가 아닌 몸으로 출세하여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라고 열성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 전술하였듯이 다이쇼14년(1925) 2월 경 히로코는 아쿠타가와에게 정열적인 편지를 보내고 있다.

「ぜひおめにかかっておはなしたい(꼭 뵙고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どこか御近所でもまゐりたい(어딘지 근처라도 가고 싶어.)」

「京都や長崎までもまゐりたいくらいに思ひますぜひぜひおきき下さい」

(교토나 나가사키까지라도 가고 싶은 정도로 생각합니다. 부디 부디 들어주십시오)」

33) 에도시대(江戸時代)의 고카이도(五街道)의 하나로, 에도의 니혼바시(日本橋)와 교토(京都)의 잇는 길.

34) 에도시대 호리쿠도(北陸道)의 호칭.

헨미 준(辺見じゅん)³⁵⁾의 기술에 따르면, 이 편지를 경계로 두 사람은 도쿄에서도 식사나 영화 관람을 함께 하게 된다고 한다. 히로코는 주변의 누가 보아도 품위있는 여성이었다. 아쿠타가와 뿐만 아니라 한참 연하인 제자 호리 타스오도 그녀에게 끌릴 정도의 여성이라면 가히 짐작될 정도이다. 그러한 그녀가 아쿠타가와에게 애절하게 매달리듯 만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응답하듯 두 사람은 만남을 가지고 있다. 어쩌면 히로코의 열정이 더 강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것은, 히로코가 「女でないものに出世して」 등과 같은 묘한 심정을 토로한 것 등에서, 아쿠타가와보다 14살 연상이다, 혹은 일남 일녀의 어머니라는 입장을 생각해서인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히로코는 일찍이 버나드 쇼 원작의 『선장 브라스바온드의 개종(船長ブラスバオンドの改宗)』의 후기에,

「私は地味なさびしい家庭の家内として、自分の夫と兄弟よりほかの男子と口をきくことは極く稀の事です。それ故私の男子の言葉の知識は甚だ貧弱です。(저는 수수한 가정의 아내로서, 제 남편과 형제 외 다른 남자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저의 남자언어에 대한 지식은 매우 빈약합니다.)」

라고 적고 있다. 남성의 대사가 번역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어딘가 가슴을 울리는 바가 있다. 문학에 대한 이해심이 있었던 남편이었지만, 그러나 문학전문가는 아니었다. 번역가 무라오카 하나코(村岡 花子)의 회상에 따르면, 히로코는 남편의 서거 후, 얼마 되지 않아서,

「きょうね、馬込のほうへ散歩にいったときにね、弁天池の底へ結婚ゆびわをほうり込んできました(오늘 마고메 쪽으로 산책하러 갔을 때 말이에요, 벤텐지 연못 속으로 결혼반지를 던지고 왔어요)」

라고 했다고 한다. 그럼 히로코의 아쿠타가와에의 사랑이라는 것은, 단지 문학에의 사랑만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아쿠타가와도 전장에서 기술하였듯이 가루이자와에서의 어느 여름날 히로코와의 만남으로 생겨난 연정을

「あぶら火のひかりに見つところ悲しくも、み雪ふる越路のひとの年ほぎのふみ(기름불 불빛

35) 본명 시미즈 마유미(清水 眞弓)1939년-2011년. 일본의 가인·논픽션 작가.

으로 보면서 마음이 서러워지는 것은, 눈 내리는 고시비토의 새해 인사편지)」

라고 노래하고, 「재능으로도 다룰 수 있는 여성(才力の上にも格闘できる女)」 또 「고시비토(越し人)」라고 경모했던 것이다.

우연인지 히로코의 묘지에 인접한 지겐지(慈眼寺)에는 인연 아쿠타가와가 잠들어 있다. 아쿠타가와와 죽음 이후, 가타야마가의 성묘를 마치고 아쿠타가와와 묘소를 참배하는 히로코의 뒷모습을 따라가면, 위의 노래에 대한 상문가는 더욱 애처로운 느낌이 든다.

「空ちかき越路の山のみねの雪夕日に遠く見ればさびしき(하늘 가까이 쌓인 고시지 봉우리의 눈, 멀리 석양에 바라보니 쓸쓸한 마음)」

히로코는 마지막 아쿠타가와와 모습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 아쿠타가와와 각종연 표에도 그 이하의 사적에 대해서는 기재되지 않고 있다. 다만마쓰무라 미네코(松村 みね子)의 전자 텍스트의 저본인 2004년 월요사(月曜社) 간행의 가타야마 히로코/마쓰무라 미네코 『도카세쓰(灯火節)』 약년표 「쇼와2년(1927) 49세」항에 이하와 같이 기재되고 있다.

「六月末、堀辰雄の案内で芥川竜之介が広子の自宅を訪れる。蛇足。これで終わりにする。(6월 말, 호리 타쓰오의 안내로 아쿠타가와 류노스케가 히로코의 집을 방문하다. 사족. 이것으로 끝맺는다..)」

이로부터 아쿠타가와와 「輕井沢で...追憶の代はりに...(가루이자와에서의 추억을 대신하여)」라는 마지막 말이 분명히 들려오는 듯하다.

진정한 연심이었다는 것이, 다른 이성적 형태를 통해 그녀와의 사랑을 정리하고 있는 아쿠타가와와 모습에서 느껴진다.

4. 결론

아쿠타가와와, 다이쇼13년 여름, 가루이자와에서 그의 최후의 연인이라는 가타야마 히로코를 만난다. 14살 연상의 미망인으로 재원이자 미모의 여성이었던 히로코의 총명한 지성은, 두 사람이 나눈 단시를 통해 유감없이 드러나 있다. 히로코는 아쿠타가와보다 14살 연상이라

는 점에서 아쿠타가와와의 모정을 부추키기에도 충분했을 것이다. 결국 두 사람의 연정은 플라톤적 사랑으로 정리 되지만, 아쿠타가와와의 히로코와의 연정은 「재능으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여성」으로서 문학자끼리의 교류 위에 지적유희와 즐거움을 아쿠타가와에게 안겨다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거기에는 어쩔 수 없는 남녀의 연정도 숨겨져 있음이 검토된다. 히로코의 아쿠타가와와의 사랑은 죽은 남편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반지를 내버리는 행동을 통해, 단지 문학에의 사랑만이 아니었음이 드러나며, 무엇보다 아쿠타가와와는 그녀를 ‘고시비토(越し人)’라는 서정시를 지어 히로코와 사랑에 빠지기 전,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애썼다는 점이다. 그것은 죽음을 앞두고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던 아쿠타가와가 할 수 있었던 이성적 사랑의 모습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그만큼 연정이 강했다는 것을 역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진정한 연심이라는 것을, 다른 이성적 형태를 통해 그녀와의 사랑을 정리하고 있는 아쿠타가와와의 모습이 보여진다.

중요한 것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전집(芥川竜之介全集)』을 읽으면, 아쿠타가와가 하이쿠(俳句)뿐만 아니라, 장가(長歌), 단가(短歌), 세도카(旋頭歌) 등, 노래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노래를 지어 지인들에게 보내었다는 사실이다. 아쿠타가와와의 소설가 이전, 시인으로서의 소질과 자질을 충분히 드러낸 것으로, 아쿠타가와와의 단가를 통해 드러나는 그 세심한 배려와 언어의 유희에는 놀랄 수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히로코와의 관련 노래만을 검토한 관계로, 아쿠타가와와의 그러한 단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조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쿠타가와가 보여준 ‘고시비토(越し人)’와 ‘상문(相聞)’의 단가는 만년에 가까워질수록 세심하고 세련도가 증가하고 있음은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쿠타가와 연구의 한 테마로서 후일 보다 심도있는 고찰을 통해, 아쿠타가와와는 본능적으로 소설가보다는 시인이었다는 사실에 다가가고자 한다.

【参考文献】

- 清部千鶴子(1997)『片山広子-孤高の歌人-』平成12年発行3刷、短歌新聞社、p.14、pp.17-18、p.44、p.66、pp.80-84
- 片山広子(2007)『灯火節』発行新編、月曜社、pp.79-84、pp.225-228
- 川村湊(2005)『物語の娘-宗瑛を探して』講談社、pp.124-125
- _____(1983)『芥川竜之介(新潮日本文学アルバム)』2刷参照、p.76
- 近藤富枝(1976)『馬込文学地図』講談社、pp.178-188
- 小久保実編(1984)『『菜穂子』の構想と実現』『新潮日本文学アルバム17 堀辰雄』新潮社、pp.78-83
- _____(1996)『馬込文士村ガイドブック』東京都大田区立郷土博物館編・発行、p.18、p.56、p.104

染谷孝哉(1971)『大田文学地図』蒼海出版、pp.138-139

加藤愛夫(1960)『辻村もと子-人と文学』、いわみざわ文学叢書刊行会、p.150

沼尻長治(1938)『火災保険特殊地図』NO.66

林順信(1987)『東京路上細見(1)』平凡社、初版発行(同年発行2刷参照) pp.140-144

<https://tatsuno.shisyou.com/biographical-sketch.html>

もうひとつの年譜・堀辰雄の書簡(검색일 2019.09.20)

http://onibi.cocolog-nifty.com/alain_leroy/2010/08/post-87d5.html(검색일: 2019. 09.26)

<https://ja.wikipedia.org/wiki/>(검색일 2019.09.27)

논문투고일	: 2019년 09월 30일
심사개시일	: 2019년 10월 15일
1차 수정일	: 2019년 11월 08일
2차 수정일	: 2019년 11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9년 11월 18일

 <要旨>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竜之介)론

- 가타야마 히로코(片山広子)에의 사랑과 노래를 중심으로 -

김영희

아쿠타가와, 다이쇼13년 여름, 가루이자와에서 그의 최후의 연인이라는 가타야마 히로코를 만난다. 14살 연상의 미망인으로 재원이자 미모의 여성이었던 히로코의 총명한 지성은, 두 사람이 나눈 단시를 통해 유감없이 드러나 있다. 히로코가 아쿠타가와보다 14살 연상이라는 점은 아쿠타가와와 묘정을 부추키기에도 충분했을 것이다. 결국 두 사람의 연정은 플라톤적 사랑으로 정리 되지만, 아쿠타가와와 히로코의 연정은 「재능으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여성」으로서 문학자끼리의 교류 위에 지적유희와 즐거움을 아쿠타가와에게 가져다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거기에는 어쩔 수 없는 남녀의 연정도 숨겨져 있음도 검토된다. 히로코의 아쿠타가와와의 사랑은 죽은 남편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반지를 내버리는 행동을 통해, 단지 문학에의 사랑만이 아니었음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아쿠타가와는 그녀를 ‘고시비토(越し人)’라는 서정시를 지어 히로코와 사랑에 빠지기 전 그 위기를 넘기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그것은 그만큼 연정이 강했다는 것을 역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히로코의 연심이 진정이었다는 것은, 다른 이성적 형태를 통해 그녀와의 사랑을 정리하고 있는 아쿠타가와와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Ryunosuke Akutagawa

- Focusing on love and song by Hiroko Katayama -

Kam, Young-Hee

Akutagawa meets his last lover (Hiroko Katayama) at Garuizawa in the summer of 13th year of the Taisho. The intellect of widow, a beautiful woman called Hiroko, who is 14 years older than him, was exposed on short poems exchanged by the two.

The fact that Hiroko is 14 years older than Akutagawa may have been enough to incite the motherhood of Akutagawa. In the end, their relationship ends up with a platonic love. However, it is believed that she is a woman who can compete against him with her own talent and her coalition with Akutagawa brought intellectual pleasure and joy to Akutagawa by the exchanges of literary figures.

However, it is also considered that the inevitable relationship between a man and a woman is hidden. The attraction to Akutagawa from Hiroko turns out to be not just love for literature, but a man and woman relationship that can be speculated through her act of throwing out a ring, which symbolizes her relationship with her late husband.

Above all, Akutagawa tried to overcome the crisis before falling in love with Hiroko by writing a lyric poem called "Kosibito." This suggests that the coalition was so strong. Akutagawa's feeling to Hiroko was genuine, and it can be found in his tries to forget about his love by doing something with different rational forms